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The Asse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among the Middle-aged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고 선 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Kang Koh

<Abstract>

Financial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re a growing tren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of household assets to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among the middle-aged and focuses on the influences of various types of assets on financial transfers from the middle-aged to their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The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KReIS on the financial transfers provided by those aged 50-69 years to their parents and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around one-fifth of the respondents reported providing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parents, and that about one-third of the respondents provided financial transfers to their children. In terms of the other direction of financial transfers, a small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received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parents; otherwis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ed receiving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The influences of various types of asse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financial transfers to parents, to adult children and from adult children. Specifically the size of financial assets is associated with a likelihood of providing financial resource to both parents and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 자산(asset), 경제자원(financial resource), 세대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

I. 서론

과거에 중년기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였다(Lachman, 2001). 이 시기에 노환이 있는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생기지만, 자녀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년의 삶을 직

접 준비하는 과업을 갖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년기 가정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돌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또한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시기도 늦어져서 중년층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Putney & Bengtson, 2001). 이는 노부모 돌봄과 자녀부양의 이중책임을 지는 '샌드위치세대'로 사는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서구의 샌드위치 세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부모 돌봄, 자녀 돌봄과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 간의 갈등, 경쟁에 관한 관점에 근거한다(Brody, 1981; Putney & Bengtson, 2001).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이전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서구사회는 개별 가정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 이 논문은 201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Sun-Kang Koh,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el: +82-2-920-7624, E-mail: skoh@sungshin.ac.kr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사회는 아직 국민연금 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으로 노년층을 부양하는 비중이 낮아 중년기 가정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상당한 부분 지고 있다. 동시에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은 더 긴 기간 동안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부모들이 성인 자녀들의 결혼자금, 신혼집 마련자금을 도와주고 있으며, 손자녀 양육비까지 지원하고 있다(Koh, 2012). 이렇듯 샌드위치 세대로서 우리나라 중년기 가정이 갖는 경제 영역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세대에 관한 연구는 중년기 가정의 다른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시간제공을 모두 고려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중년기 가정이 노부모에게 경제 자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결혼자금을 마련해주고,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 등은 개별 가계(household)가 친족관계의 범위 안에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가정의 자원 이전은 한 가정이 어떤 특정 자원을 다른 가정으로 보내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자원의 제공자가 있으면 동시에 수혜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원 이전 행동은 자원을 보내고, 받는 쌍방간의 관계 맺기로 볼 수 있다(Koh, 2011). 이러한 자원 이전 행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를 세대 간 자원이전이라 한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자원이전이 대표적인 세대 간 자원이전이라 할 수 있다.

세대 간의 자원이전은 주로 생존해 있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 경제자원을 주고받는 것에 한정시켜 연구되어 왔다.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은 친족관계 안에서 경제자원의 이전을 의미하는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서구의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부동산, 현금, 금융자산 등의 경제자원이 부모세대로부터 어떻게 자녀세대에게 이전되어 부가 세습되고 재분배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Koh, 200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로부터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연구들과 더불어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 측면에서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경제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제자원 이전의 방향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내려오는가, 자녀세대에서 부모세대로 올라가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대다수의 연구들은 세대 간 자원이전의 동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의 동기를 연구하는데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자원 이전의 동기와 관련된 이론 검증에 자원이전 당사자의 경제 수준은 주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경제자원 제공자의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높아진

다고 보고하고 있다(McGarry & Schoeni, 1995; Kim & Song, 2004; MacDonald & Koh, 2006; Koh, 2011; Koh, 2012a). 반면 자원 수혜자의 경제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와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McGarry & Schoeni, 1995, 1997; Koh, 2012b),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Cox & Rank, 1992; McGarry, 1999). 선행연구들 대다수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가계소득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 제약 하에 소비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기초로 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경제자원을 소득 중심으로 측정한 자료의 제한성도 소득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계의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데에 소득수준 뿐 아니라 자산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측정해야 하는 유량의 개념이고, 자산은 특정 시점에 측정하는 저량의 개념이므로 소득수준과 자산상태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가계의 경제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 있어서도 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Koh, 2011)도 있으나, 세대 간 자원이전에 대한 자산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중년기 가정을 중심으로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서 자산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경제자원 이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특정 형태의 자산이 경제자원 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노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중년기 가정을 중심으로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을 통해 연구하고, 이러한 이중부담에 대한 자산의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부모·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으로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을 들 수 있다(Koh, 2008에서 재인용). 이타주의론은 Becker (1991)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 경제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이론으로 가계(household)가 아닌 가족(family)을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로 보고, 이타적인 가장과 이기적인 가족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룬 이론이다. 이타적 가장은 가족원들의 복지(well-being) 수준

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지는 존재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이 증대되는 반면 이타적인 가정은 스스로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이 동반되어야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은 가족구성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에 기인한다는 점을 경제효용함수로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정(부모)의 효용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구성원(자녀들)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을 보상적 이타주의론(compensatory altruism)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에서 보상은 부모가 자녀들 중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타적인 부모는 자녀들 모두가 적정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본인 스스로의 복지증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는 자녀들, 즉 다른 자녀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하여 소득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주는 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자신의 소득이 부족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전 소득을 통해 소비수준을 높게 되고 자녀의 복지감은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자원이전은 부모 자신의 복지감 증진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를 더 많이 도와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타주의론을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에 한정하지 않고, 역으로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으로 확장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적용하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자녀 자신이 행복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샌드위치 세대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중 누구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것인가에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적용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자원 제공자는 자원이전을 이용해서 자원의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즉 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의 호혜성에 기초한다는 것이며,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대가가 미래에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미래에 나타날 보답(reward)¹⁾이 현재의 행동에 따르는 비용(cost)

보다 더 크다고 예상될 때 비로소 현재의 행동을 하게 된다. 현재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즉시 주어질 수도 있고, 먼 미래에 주어질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자원 이전이 가져다 줄 보답(rewards)과 경제자원 이전에 따르는 비용(cost)을 계산하여 보답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원의 제공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을 판단하여, 대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경제자원을 이전한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부모가 경제자원 이전을 결정할 때, 앞으로 확실한 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돌아올 대가를 예측할 수 있는 현재의 지표로 소득, 자산,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교환이론에 근거해서 중년의 자녀와 노부모 간의 자원이전을 설명하면, 중년의 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는 유산상속, 자산증여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의 자녀가 유산이나 자산증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 자원 수혜자와 제공자의 경제자원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해 왔다. 이타주의 모델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자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자녀의 소비가 증가되고, 자녀의 복지(well-being)가 증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소비를 통한 가족의 복지 증진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감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중요하게 간주하였고, 따라서 경제자원 이전의 동기를 찾는데 소득의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의 교환이론도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서 자녀의 소득을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었다. Cox(1987)는 자녀가 부모에게 서비스(돌봄, 가사노동 등)를 이전하는 행동과 자녀의 소득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자녀의 소득 증가는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녀의 시간의 가치를 높게 되어 부모가 자녀의 시간을 구매하는 행동, 즉 자녀로부터 서비스를 이전 받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중심의 관점으로부터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자원이전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은 세대 간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세대 간의 관계 유지와 확대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원이전 연구에서 소득의 영향력 관찰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제자원을 고려할 때,

1) 문에,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reward를 보답으로 해석하였다.

1) Compensatory altruism을 보상적 이타주의로 해석하였기 때

부모 자녀 간 경제자원 이전 연구를 통한 세대 관계의 특성과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다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자원 이전 관련 변인

1)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 자원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 있어서 자원 제공자의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McGarry and Schoeni(1995)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유한 자녀들보다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 받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때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경제자원 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ohn(1998)의 가족간 소득 이전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은 자원의 제공자인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에 대한 사적 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Kim and Song(2004)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의 상호 교류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경제자원이 많은 자녀인 경우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Kim(2006)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의 순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MacDonald and Koh(2006)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높은 수준인 경우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경제자원 이전을 받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중고령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Kim and Park(2008)의 연구에서 중·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치매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원이전을 연구한 Koh(2008)는 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에 있어 자원의 제공자인 자녀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자산상태 중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자원 이전의 경향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Koh(2011)의 연구에서 40대에서 60대의 조사대상자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는 자산 수준이 높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Koh(2012a)는 노부모와 기혼성인 자녀를 둔 50-60대 중년층 1123명의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가계소득은 높은 집단에 속하고, 가계자산은 낮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이 자원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McGarry and Schoeni(1995)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분석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자원을 균등하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McGarry and Schoeni (1997)도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의 분석을 통해서 부모가 주로 소득이 낮은 성인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을 추정하여 자녀의 소득이 낮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이전을 받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cGarry(1999)는 자원의 수혜자인 자녀의 경제상태를 좀 더 다양한 변수들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현재소득, 자녀의 주택소유의 유무, 평생소득의 대체변수로 교육수준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이들과 부모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HRS와 AHEA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현재소득은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Pezzin and Schone(1999)도 AHEAD 자료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고, 이전 액수도 많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oh(2011)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ox(1987), Cox and Rank(1992)는 성인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경제자원 제공 액수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n Families and Households(NSFH) 자료 분석을 통해 경제자원 수혜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자원의 수혜 확률이 높아지고 액수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MacDonald and Koh(2003)는 미국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하나의 확대가족 안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자원 이전을 연구하였는데, 수혜자인 자녀의 소득수준은 부모의 경제자원 제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세대간 경제자원 이전에 있어 자원 제공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바이다.

2) 관련 변인

경제자원 이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 자원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Jin, 1999; Kim & Song, 2004; Kim, 2006)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자원 이전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자원 제공자의 성별이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다른 가구원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있고(Kim & Park, 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들인 경우 딸보다 경제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Kim & Song, 2008). 이 밖에도 자원제공자의 교육수준(Jin, 1999; Kim & Song, 2004; Kang & Jeon, 2005; Kim, 2006; Kim, 2008), 혼인상태(Koh, 2005), 자녀수(Koh, 2005; Park, 2007; Kim & Song, 2008) 등이 관련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중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의 양상은 어떠하며, 경제자원 이전 행동에 따른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가정의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 행동과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자원 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중년기 가정의 자산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년기 가정의 이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자산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표본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2007년도)를 활용하여 연구표본을 추출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은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로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과 시설단위의 조사구를 제외한 24,995개 일반조사구(1,420,999가구)에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가구가 조사대상가구로 추출되었고, 만 50세 이상 가구원과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는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 가계의 경제상태를 알 수 있는 변인들이 자세하게 조사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

사대상자의 자산과 부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였고, 경제상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제한적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어서 3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표본은 조사대상자 총 5110가구에서 연령이 50-69세인 중년기 성인 중 적어도 1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 적어도 1인 이상의 비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추출하였다.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추출된 경우는 가구주만 표본에 포함시켰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1106사례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자원이전이다. 경제자원이전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1년 동안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하신 적이 있는가'와 '작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가족,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종교단체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로 측정되었다. 이 두 문항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자녀로부터'에 답한 경우를 추출하여 '부모에게 경제자원이전' '자녀에게 경제자원이전'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이전'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이전' 변수로 사용하였다. 3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의 이중부담을 분석하기 위하여 '3세대'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 제공을 한 경우(이중부담), 부모에게만 또는 자녀에게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경제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은 중년기 가계의 자산과 부채이다. 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였다. 부채는 총부채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가계소득과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녀수, 손자녀 유무, 부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친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경제 수준이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무학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부모의 경제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Values	n (Mean)	% (S.D)	
Dependent variables :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parent(s)	No=0	873	78.9	
		Yes=1	233	21.1	
	To child(ren)	No=0	800	72.3	
		Yes=1	306	27.7	
	From parent(s)	No=0	1086	98.2	
		Yes=1	20	1.8	
	From child(ren)	No=0	633	57.2	
		Yes=1	473	42.8	
	3-generation	To neither parents nor children=0		637	57.6
		To parents or children=1		399	36.1
To both parents and children(double burden)=2		70	6.3		
Independent variables	Asset and debt	Property asset	Money value(10,000 won)	21767	36193
		Financial asset	Money value(10,000 won)	2154	5365
		Other asset	Money value(10,000 won)	395	913
		Debt	Money value(10,000 won)	3717	7466
Respondents	Gender	Female=0	543	49.1	
		Male=1	563	50.9	
	Spouse	No=0	163	14.7	
		Yes=1	943	85.3	
	Age	Year	58.07	4.82	
	Education	No school/elementary=1		382	34.6
Middle/high school=2		580	52.4		
College /higher education=3		144	13.0		
Control variables	Household income	Money value(10,000 won)	3820	4254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children		2.68	1.10
		Grand child	No=0	524	47.4
	Yes=1		582	52.6	
	Parental status	Only parent alive=0		952	86.1
		Both parents alive=1		154	13.1
	Parents	Parent's economic status	Very bad=1		2.68
Bad=2					
So so=3					
Good=4					
Excellent=5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3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의 양상과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세대 간 경제자원 교류 양상 및 집단 특성 비교

3세대 간 경제자원 교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했는가, 수혜했는가,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 표본 1106사례 중 42.77%가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은 것과는 달리 단지 1.8%만이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았다. 반면 21.06%는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했고, 27.66%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여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Table 2. Financialresource Transfers between Respondents and Parents, and Children

	From parents	To parents	From children	To children	No transfer
n	20	233	473	306	74
%	1.80%	21.06%	42.77%	27.66%	6.69%
			From parents		
			No	Yes	
From children	No	n	617	16	
		%	55.7%	1.44%	
	Yes	n	469	4	
		%	42.41%	0.36%	
			To parents		
			No	Yes	
To children	No	n	637	163	
		%	57.59%	14.73%	
	Yes	n	236	70	
		%	21.34%	6.33%	
			From parents		
			No	Yes	
To children	No	n	783	17	
		%	70.79%	1.53%	
	Yes	n	303	3	
		%	27.39%	0.27%	
			To parents		
			No	Yes	
From children	No	n	494	139	
		%	44.67%	12.57%	
	Yes	n	379	94	
		%	34.27%	8.50%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연령분포가 50-60대이고 부모의 연령을 70-90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중년의 부부는 고령의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지원받기 보다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사대상자와 비동거 자녀들의 관계는 조사대상자가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는 비율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경제자원 이전을 통해서 교류하는 비율보다 자녀와 교류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제자원 교류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부모, 자녀와의 자원이전 방향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한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1106 사례 중 4사례인 0.36%만이 부모와 자녀 모두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 받았다고 답했다. 55.7%(617 사례)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의 경제

적 지원도 없었고,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비율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제공한 경우가 70 사례로 6.33%였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637사례로 57.59%였다. 표본의 6.33%가 지난 1년 동안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을 모두 제공한 이중부담을 경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세대 간 경제자원 교류의 양상에 따라 집단을 나눌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 제공이라는 이중부담을 경험한 집단과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집단, 양쪽 모두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이중부담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경제자원 수준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Provided Financial Resources to Both Parents and Children

		To neither parents nor children	To parents or children	To both parents and children (double burden)	F/ χ^2	
		N=637	N=399	N=70		
Asset and debt	Property asset	Mean	184704.12	260792.79	275870.49	5.368***
		S.D	313601.97	407636.74	460015.62	
	Financial asset	Mean	18373.87	24682.88	32587.68	3.235**
		S.D	57392.96	43544.55	67005.13	
	Other asset	Mean	3312.24	4486.91	6866.51	5.739***
		S.D	7302.73	9541.04	17618.13	
	Debt	Scheffe	a	a b	b	2.011
		Mean	35077.01	42440.49	26007.24	
	S.D	70352.21	83594.92	54190.05		
	Female	317	193	33	.305	
Gender	49.8%	48.4%	47.1%			
	Male	320	206	37	17.209***	
Spouse	50.2%	51.6%	52.9%			
	No	118	39	6	6.952***	
Age	18.5%	9.8%	8.6%			
	Yes	519	360	64		
	81.5%	90.2%	91.4%			
	Mean	57.61	58.72	58.57	3.450	
Education	S.D	4.73	4.91	4.56		
	No school/elementary	222	137	23	2.489*	
Household income	34.9%	34.3%	32.9%			
	Middle/high school	342	201	37	13.251***	
Child's characteristics	53.7%	50.4%	52.9%			
	College /higher education	73	61	10	37.484***	
Grand children	11.5%	15.3%	14.3%			
	Mean	36253.31	39448.42	48043.13	5.021*	
Parental status	S.D	45845.07	31148.67	62483.45		
	Only parent alive	551	347	54	1.593	
Economic status	86.5%	87.0%	77.1%			
	Both parents alive	86	52	16		
	13.5%	13.0%	22.9%			
	Mean	2.68	2.77	2.79		
	S.D	.84	.84	1.00		

* $p < .05$, ** $p < .01$, *** $p < .001$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보면 자산 변수 중 부동산, 금융자산이다.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기타 자산은 경제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중부담 집단의 기타자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경제자원 보유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에는 배우자 유무, 연령, 소득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중부담 집단의 경우 유배우자 비율이 91.4%, 부모에게만 또는 자녀에게만 경제자원을 제공한 집단의 경우 90.2%, 경제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81.5%로 나타났다. 경제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이중부담 집단의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원제공 여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제공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중년의 조사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자원의 보유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령과 소득의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 검정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특성 중에는 자녀수와 손자녀 유무가, 부모의 특성 중에는 양친생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중부담 집단의 양친 생존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고, 손자녀가 있는 비율도 높은 것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제자원 이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수도 경제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이중부담 집단의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세대의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가 중년기 가정의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중부담을 경험한 집단은 자원을 제공할 여력(배우자, 자산보유 수준)도 높고, 경제자원 제공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요구도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 중년기 가정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탐색하여 자산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경제자원 이전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 <Table 5>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소득, 양친생존, 부모의 경제수준,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 자녀수, 손자녀 유무,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가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양친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기타자산이 많을수록 중년기 가정이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경제자원 제공에 있어서 자원 제공 주체의 경제자원 수준(소득, 자산 등)이 자원제공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경제자원 제공에 소득과 더불어 자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에는 소득과 자산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에는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부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세대에는 중년기 가정의 가계소득과 자산수준이, 자녀세대에는 중년기 가정의 자산수준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중년기 가정이 부모와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수혜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배우자 유무, 손자녀 유무, 부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손자녀가 없는 경우, 부채가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 확률이 높아진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 즉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태로 볼 수 있고, 부채가 많은 것도 경제자원의 요구가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노부모가 중년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2) 다변량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득, 부모의 경제수준, 자산변수들에 무응답 사례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사례수가 1106개에서 747개로 줄었다. 종속변수들의 각 범주의 응답 사례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4>부모에게 자원이전: 0=584 1=163, 자녀에게 자원이전: 0=539 1=208

<Table 5>부모로부터 자원이전: 0=731 1=16, 자녀로부터 자원이전: 0=431 1=316

<Table 6> 자원이전 없음(준거집단) 0=430, 부모 또는 자녀에게 자원이전 1=263, 부모 자녀 모두에게 자원이전 2=54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inancial Transfers to Parents and Children

	To parents (n=747)			To children (n=747)		
	B	S.E,	Exp(B)	B	S.E,	Exp(B)
Male	.058	.208	1.060	-.424**	.203	.654
Spouse	.513	.373	1.670	.477	.297	1.610
Age	-.003	.026	.997	.061***	.023	1.062
Middle/high school	.419*	.247	1.520	-.099	.222	.905
College/higher education	.285	.356	1.329	-.108	.350	.898
Household income(ln)	.447***	.149	1.564	-.083	.109	.921
Both parents alive	.465*	.243	1.593	.299	.271	1.349
Parent's economic status	-.219*	.115	.803	-.014	.110	.986
Number of children	-.109	.111	.897	.304***	.093	1.355
Grand children	.043	.231	1.044	1.130***	.226	3.095
Property asset(ln)	.061	.039	1.063	.033	.037	1.034
Financial asset(ln)	.052**	.022	1.054	.100***	.022	1.105
Other asset(ln)	.048*	.027	1.050	.051**	.026	1.053
Debt (ln)	-.009	.019	.991	.036*	.019	1.037
Constant	-6.893	2.214	.001	-6.753	1.853	.001
-2 log likelihood		704.61			773.45	
Model Chi-square		79.18**			150.23***	
Nagelkerke's R ²		.155			.26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and Children

	From parents (n=747)			From children (n=747)		
	B	S.E,	Exp(B)	B	S.E,	Exp(B)
Male	.835	.646	2.306	-.818***	.215	.441
Spouse	-1.644**	.744	.193	.484	.302	1.622
Age	.002	.081	1.002	.085***	.025	1.089
Middle/high school,	1.498	1.101	4.473	-.030	.231	.970
College/higher education	1.082	1.330	2.951	-.363	.377	.695
Household income(ln)	-.095	.363	.909	-.441***	.135	.643
Both parents alive	.146	.696	1.157	-.028	.296	.972
Parent's economic status	.333	.310	1.395	.110	.119	1.116
Number of children	.172	.335	1.188	.481***	.109	1.618
Grand children	-1.323*	.799	.266	1.955***	.217	7.064
Property asset(ln)	-.090	.074	.914	.005	.035	1.005
Financial asset(ln)	.014	.061	1.014	.047**	.023	1.048
Other asset(ln)	.115	.081	1.122	.046*	.028	1.047
Debt (ln)	.148**	.070	1.159	-.016	.020	.984
Constant	-5.153	6.069	.006	-3.854	2.056	.021
-2 log likelihood		129.52			666.53	
Model Chi-square		25.13**			351.26***	
Nagelkerke's R ²		.177			.504	

* $p < .05$, ** $p < .01$, *** $p < .001$

이전하는 행동은 중년의 자녀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경우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타주의적 관점이 지지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손자녀 유무,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이전 받을 경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가정이 경제자원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은 상황인 경우 자녀들이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이타주의적 동기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중년기 가정의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녀들이 많은 경우 자녀들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을 기회가 높아지는 자원제공자 특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손자녀 돌보기와 관련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으로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 돌봐주기와 경제자원 수혜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수고비나 용돈을 주는 경우 이외

에 자녀들이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가정의 자산의 영향력이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많고, 기타자산이 많을수록 중년기 가정이 자녀로부터 경제자원을 받는 경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중년기 가정의 가계소득은 자녀로부터 경제자원 수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은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현재는 중년기 가정의 소득 부족을 채워주는 의미에서 경제자원을 제공하지만, 높은 자산수준에 기대하는 미래의 보답을 생각하고 경제자원을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기 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자원 제공에는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혼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중년기 가정의 이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이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집단’ 부모에게만 또는 자녀에게만 경제자원을 제공한 집단’ 경제자원 제공을 하지 않은 집

Table 6.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of Financial Transfers to Parents and Children

Transfers (Ref= no transfer)	To parents or to children			To both parents and children (double burden)		
	B	SE	Exp(B)	B	SE	Exp(B)
Male	-.425**	.188	.654	.015	.337	1.016
Spouse	.537**	.271	1.711	.702	.590	2.017
Age	.053**	.022	1.055	-.001	.041	.999
Middle/high school	.174	.208	1.190	.207	.381	1.229
College/higher education	.245	.320	1.277	.313	.578	1.368
Low income	.025	.240	1.025	.246	.444	1.279
High income	.159	.234	1.172	-.091	.434	.913
Both parents alive	.367	.241	1.443	.805**	.403	2.237
Parent's economic status	-.095	.101	.910	-.148	.184	.863
Number of children	.193**	.088	1.213	.210	.154	1.233
Grand children	.245	.204	1.277	1.538***	.408	4.654
Property asset(ln)	.049	.032	1.050	.083	.073	1.086
Financial asset(ln)	.087***	.020	1.090	.130***	.039	1.139
Other asset(ln)	.062***	.024	1.064	.090**	.044	1.094
Debt (ln)	.026	.017	1.027	.012	.031	1.012
Constant	-5.896	1.307		-6.281	2.465	
-2 log likelihood			1182.278			
model Chi-square			125.504***			
Nagelkerke's R ²			.187			

*p < .05, **p < .01, ***p < .001

단으로 나누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범주는 '경제자원 제공을 하지 않은 집단'이며,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경제자원 제공을 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양친이 생존한 경우,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기타자산이 많을수록 이중부담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중년기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 중 자산관련 변인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것은 경제자원 제공에서의 자산수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특히 중년기 가정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행동에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의 수준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IV.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서 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자원이전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전 행동 연구에 자산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중년기 가정이 부모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때는 가정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때는 자산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세대 간 자원이전 연구들은 자원이전의 제공자와 수혜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소득과 자산의 효과만을 구분하여 보았다. 즉 제공자 또는 수혜자가 부모인지 자녀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제공과 수혜만을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자원 제공의 대상이 부모가 되는지, 자녀가 되는지에 따라서 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년기 가정이 노부모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가계소득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20-30대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자산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중년기 가정의 경제자원 제공을 통한 세대 간 관계 맺기의 양상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의 의미는 유량의 개념으로 노부모에게는 생활비, 용돈과 같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제적 지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에게는 자산과 같은 저량에 기초한 목돈지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기 가정이 자녀에게는 목돈을 제공하고 노부모에게는 생활비와 용돈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체의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접근 보다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년기 가정의 부모세대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이 대부분이다. 부모

세대인 노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고령층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년기 가정의 자녀세대는 대학 학자금, 결혼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등 생애주기 상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신혼집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은 자녀세대의 중년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시켜 중년기 가정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자녀세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 청년층의 독립을 위한 주거비 안정과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의 마련,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결혼문화의 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요구된다.

둘째, 중년기 가정의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담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자산이 많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가정이 자산을 어느 수준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세대로의 지원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양쪽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는 중년기 가정의 소득수준 보다는 자산 수준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어느 정도 축적된 경제자원이 있을 때에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중년기 가정이 보유한 자산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자원 이전을 할 수 없는데, 이들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경제자원에 대한 요구가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자신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중년층이 느끼는 이중부담에 대한 죄책감 또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 대한 자산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중년기 가정의 노부모와 자녀 부양의 이중부담에 있어서 자산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3세대 간의 경제자원 이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년기 가정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으나, 보다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경제자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과 자산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단순히 경제자원의 이전여부가 아니라 제공한 금액을 분석한다면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의 자산효과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횡단자료 분석에서 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자원을 주고 받는 행동에 있어서 영향 요인들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 발생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ecker,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dy, E. M.(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 people. *Gerontologist*, 21, 471-480.
- Cox, D. & Rank, M. R.(1992).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Cox, D.(1987).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Hwang, N. & Jung, J.(2009). An analysis of private transfers among the middle aged. *The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1-22.
- Jin, J.(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curity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3, 167-199.
- Kang, S. & Jeon, H.(2005). The study o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Public Economy*, 10(1), 23-46.
- Kang, S.(2008). Changes in public transfer affected by changes in people's attitudes forward intergenerational family suppor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 65-76.
- Kim, J. & Song, E.(2004). Determinants of financial interchanges and the amount of monetary ex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75-89.
- Kim, J. & Song, H.(2008). Intergenerational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3), 77-98.
- Kim, J.(2006). *Analysis on financial inter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2008). *A study on the support behavior between Korea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S. & Park, M.(2008). The factors contributing to financial resources interchange type and amounts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househo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1-14.
- Koh, S.(2005). Resource transfers from adult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187-195.
- Koh, S.(2008). A study on the family resource transfers from adult children to their par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2), 209-229.
- Koh, S.(2011).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in the middle and the early old aged: an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157-175.
- Koh, S.(2012a). Reciprocity on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elderly parent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03-121.
- Koh, S.(2012b). Parental support for marriage formation an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19.
- Koh, S., & MacDonald, M.(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Lachman, E.(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MacDonald, M. & Koh, S.(2003).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simple altruism.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1), 73-98.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McGarry, K.(1999).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Park, M.(2007). *Influential factor on financial resources benefits and the benefit amount of retired the age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Putney, N. & Bengtson, V.(2001). Famili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kinkeeping in midlife. 528-570. In E. Lachman,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Wiley & sons, Inc: New York.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P. 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385-411). NY : Plenum Press.

Sohn, B.(1998). Determinant factors for the inter-family income transfer in korea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marri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1(2), 261-267.

접수일 : 2013년 01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2월 09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01일